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20: 사도행전에서 오순절까지(사도행전 2장)

Ted Hildebrandt 박사

A. “우리” 구절들 - 두 번째 선교 여행 [00:00-4:29]

A: AC 결합; 00:00-9:18; 2nd - 3rd MJ 및 로마 “We” 구절

안녕하세요 ,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사도행전의 구조, 예루살렘 중심의 베드로에서 바울로, 그리고 땅 끝의 구조(행 1:8)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초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와 배경, 그리고 그가 그것을 쓴 시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베드로와 바울의 말과 비교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누가 정말로 이 책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와 누가 이 책에서 자신을 기록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절”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가 그들이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다고 말하는 특정 장소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의 언어로”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그가 “그들의 언어로”라고 말할 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3인칭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

우리는 이것을 했고, 우리는 저것을 했습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우리” 구절들의 결과로 누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곳을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구절들”이라고 부르고, 저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특히 개발하고 싶은 구절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터키 중심부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바나바와 요한 마가를 남겨둡니다. 그들은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태우고 기본적으로 터키를 거쳐 터키 북서부까지 갑니다. 그는 에베소로 가고 싶어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아시아 지방을 따라 북쪽으로 데려가십니다. 대신 그들은 터키 북서부에 있는 트로이 바로 남쪽에 있는 트로아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트로아스는 “우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6장에서 이것은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갈라디아가 붙잡혀 있는 프리기아 지방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미아시아 국경 에 이르렀을 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입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즉시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에, 그리고 당신이 내려갈 때에.” 기본적으로 그는 트로아에서 빌립보로 갔고, 그런 다음 16장에서 빌립보 간수와 함께 이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은 점술을 하는 예언하는 소녀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냈고, 주인들은 이 소녀에게서 돈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소녀에게서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에 빌립보 간수가 있고, 그들은 밤에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고 마침내 천사가 와서 문을 엽니다. 빌립보 간수는 자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바울은 풀려나고 빌립보 간수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훌륭한 진술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나. “우리” 에 대한 구절들 - 제3차 선교 여행 [4:29-5:33]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는 터키 북부의 트로아스에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을 때 17장에 “안티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거나 지금의 데살로니키로 내려갑니다. 그가 거기에 내려갔을 때 “그들” 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빌립보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 트로아스에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3차 선교 여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해 보세요. 바울은 터키를 거쳐 다시 길을 떠났고, 다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우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머물렀던 빌립보에서 다시 시작되었고, 바울이 다시 왔을 때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이 "우리"를 사용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이 역사적 기록에서 매우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3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빌립보로 갔고, 그런 다음 "우리"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여행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말했을 때, 누가는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팔레스타인에서 감옥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누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카이사레아에서 감옥에 있을 때의 "우리" 구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카이사레아, 누가, 그것이 "우리" 구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 트로아스에서 빌립보까지, 그리고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합니다.

C. "우리" 구절들 - 바울과 함께 로마로의 여행 [5:33-9:18]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호소하는 위대한 장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카이사르에게 호소했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려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덮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죽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에게 호소하며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카이사르에게 호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로마로 보내야 했고, 그래서 그들은 아그리파를 데려와서 “이 사람을 무슨 죄목으로 고발할까요?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텐데, 어떤 죄목으로 보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고발하고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를 이 배에 태워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로마로 갔습니다. 여행 중에 폭풍이 일어나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이 난파선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발생하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것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들은 죄수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결국 몰타 섬에 추락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27장은 어떤 사람들이 고대 세계에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고대 묘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기 기록에서 항해에 대한 가장 좋은 묘사 중 하나이므로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바울, 그런데 누가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것은 또한 “우리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과 함께 팔레스타인에서 2년을 보냈고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누가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고 , 이것은 디모데후서 4:11에 나오는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 이것은 바울이 처음 로마에 온 때로, 아마도 서기 63년경이나 그 무렵이고, 디모데후서는 그 후, 서기 67년에 나옵니다. 이것은 5년 후이고 , 디모데후서 4:11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로마에 두 번이나 묻혔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반은 서기 63년경이고, 그 후 분명히 그는 서기 67년이나 68년경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10에 바울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4:10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의사로, 아마도 바울을 돌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디모데에게 말하며 "디모데,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요한 마가를 기억하세요. 바울과 요한 마가 사이에 있었던 불화를 기억하세요.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요한 마가를 불러 "그가 나와 내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 때, 트로아스에 있는 카르보에게 두고 온 외투와 내 두루마리, 특히 양피지를 가져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외투를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곳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투를 달라고 요청하고 두루마리, 특히 양피지를 가져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후서 4:11에 있는 아름다운 진술로, 누가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ㄷ. 누가복음의 문체와 데오빌로 [9:18-11:22]

B: DE를 결합하다; 9:18-13:22; 데오빌로 와 사도행전의 목적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의 어휘와 스타일은 매우 유사합니다. 누가복음은 매우 고전적이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쓰여졌습니다. 문장 구조가 훨씬 길고, 쓰여진 방식이 더 정교합니다. 사도행전도 같은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수백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는 단 한 번만 사용된 *하팍스 레고메나* 라고 불리는 매우 드문 단어입니다. 사도행전도 매우 정교한 스타일, 매우 문학적인 스타일, 고전적인 스타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매우 유사합니다.

두 책 모두 데오필로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는 지극히 뛰어난 데오필로스 로 불리며 누가복음 1장 1-4절은 이에 대해 쓰고 그를 지극히 뛰어난 데오필로스 로 밝힙니다. 사도행전 1장도 그를 데오필로스 로 밝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별명이나 성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어를 나눕니다. 여기서 *테오*라는 단어가 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로스는 필라델피아와 같으며, 필라델피아의 도시이며 형제적 [

아델포스] 사랑의 도시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데오필루스는 "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들이 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가 "대단히 뛰어난 데오필로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칭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뛰어난 데오필로스, 즉 어떤 정부 관리, 어떤 존엄한 사람이며 그의 이름은 데오필로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제 이름으로 생각하고 그의 직함은 "대단히 뛰어난 데오필로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누가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고 바울이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데오빌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니?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 있어. 내가 너에게 이걸 말하는 건 네가 그를 변호하러 갈 때 이 모든 배경을 알게 하려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마. 누가 왜 사도행전을 썼는가? 교리문답과 역사 [11:22-13:22]

이제 누가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고, 우리는 이 문제를 꽤 빨리 살펴볼 것입니다. 데오필로를 위한 교리문답 지침. 데오필로는 어린 신자일 수 있고, 누가는 예수의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예수의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와 바울, 초기 교회의 배경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리문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여러분은 교리문답을 배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공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자라면서 고백했던 대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고 영원하며, 지혜로우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 교리문답을 배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오늘 수업에 참석한 어떤 학생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신앙고백들을 가지고 있고, 이 신앙고백들은 주로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가르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이 교리문답의 목적은 루가와 사도행전이 기본적으로 데오필루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훈련시키기 위해 쓰여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오필루스에게 교리문답의 기능은 바울을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책이지만 교회 전체의 역사는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완전한 역사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에 초점을 맞춥니다. 도마, 도마가 한 모든 일, 빌립과 다른 많은 사도들은 사도행전의 처음 몇 장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기본적으로 죽고 퍼져서 사방으로 갔고,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의 세 번의 선교 여행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완전한 역사는 아닙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알아차린 것에 초점을 맞춘 바울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F. 누가의 변증적 관심과 기독교 박해 - 무신론자들의 비난 [13:22-17:21]

C: FG를 합치다; 13:22-21:10; 초기 박해의 이유

변증론,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변증론을 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카인을 일으켜 그를 박해합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군중, 폭도, 폭동을 선동합니다. 그것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행해졌고,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에는 유대인들을 불신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이 모든 혼란에 대해 바울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며, 그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그의 요점은 폭동과 폭도, 이런 종류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권능,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질투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변증론적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종종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고 그 사람은 그 고소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고 신문에 실리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고발을 함으로써 이미 정죄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재판 없이 고발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몇 가지 고발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습니다 . 왜냐하면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무신론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신론자로 여겨질까요? 그것은 그들이 에베소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돌과 은의 신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자로 여겨졌고, 보이지 않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경배하고, 허공에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신을 매우 강하게 믿지만 돌과 은의 신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 중 한 명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은 그를 무신론자로 죽도록 정죄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군중을 돌아보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을 없애세요."라고 말했고, 그들이 무신론자이고 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들을 없애세요."라고 말했고, 그들을 가리키며 비난을 뒤집었습니다.

다른 두 가지를 언급해야겠습니다. 하나는 1세기의 초기 교회 박해인데, 데이브 매튜슨 박사가 그의 강의에서 아주 잘 언급했고, 기본적으로 그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로마 카이사르의 로마 박해는 1세기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 박해의 대부분은 카이사르를 기쁘게 하고 카이사르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작은 마을의 지역 권세자들이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카이사르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어떤 종류의 혈통을 가진 다른 집단의 기독교인을 박해했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같은 제국 전체에 걸친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국에서 일어난 다른 대규모 박해와 같은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항상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많은 박해가 로마 제국의 보편적인 범위가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지역의 작은 고위 인사들에 의해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 누가의 변증적 관심과 그리스도인 박해 - 근친상간과 식인종 [17:21-21:10]

이제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근친상간이라는 이유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친상간? 이제 이 근친상간적인 일이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그들은 형제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결혼하는 가까운 공동체였습니다. 형제 자매는 근친상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그들이 육체적으로 친척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것이었고, 우리가 방금 지적한 것처럼 로마의 대규모 박해는 지역적 반대가 더 심화되었고 또한 기독교가 유대교의 지배를 받는 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측면에서 유대교는 로마 정부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두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유대인을 로마에서 쫓아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를 통해 몰락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박해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참아냈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들은 그들을 개종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고 제국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강요받은 일 중 일부를 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였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유대교 아래에 숨었을 때, 마치 다른 종파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길의 사람들이 있었거나 나사렛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저 유대교의 또 다른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그들은 그저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하게 두세요, 그것은 그저

유대교의 종파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들은 분열되었고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갔고 기독교는 스스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 숨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박해가 왔습니다.

그들은 별도의 종교가 되었고, 그런 다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기독교 단체가 모임을 가졌고 로마인들은 그것을 이런 종류의 비밀 모임으로 여겼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런 비밀 모임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하며, 그래서 그들은 이런 비밀 모임에서 식인종이고,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피를 마시고 그의 몸을 먹으며 이것은 당신을 위해 쪼개진 내 몸이며, 그들은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고, 그러므로 이 식인종들과 무신론자들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성찬이 오해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몸을 먹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초기 교회가, 지금은 완전히 허무한 이유라고 말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곧 무언가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같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곧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곧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들은 식인종입니다. 그들은 비밀 회의를 하고 형제 자매와 결혼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저지르므로 우리는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 아니요, 이런 것들은 틀렸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H. 누가는 왜 그것을 썼을까요? 선교사들의 우려 [21:10-25:25]

D: HK 결합; 21:10-35:50; 누가는 언제 왜 사도행전을 썼는가

선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우리는 이 머리글자어 CHAMP를 맨 위에 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선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퍼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퍼져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교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함과 관련이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성령의 임함과 꽤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네 번이나 네 그룹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꽤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아마도 가장 유명할 겁니다. 오순절 때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내려와서 불로 사람들을 둘러싸고 바람이 불고 성령이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몇 분 후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임함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재림은 사도행전 8장 17절에 사마리아인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으로 옮겨가고, 8장 17절을 확대합니다. 그런 다음 10장 44절 이하에서 성령이 마침내 고넬리우스에게 임합니다. 고넬리우스가 상징적 또는 이방인 대표였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서 옮겨가고, 성령이 유대인을 통해 임하고 성령이 8장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임하고, 10장에서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사이에서 10장에 나오는 고넬리우스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이 맞습니까?

하지만 아니요, 한 무리가 더 있고 19장 1-6절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성령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구절인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세례 요한을 보고 내려가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례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 그들은 터키나 에베소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세례 요한에 대해 들었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오실 분에 대해 말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한 다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여행을 하다가 돌아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만 알았을 뿐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왜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종류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느렸고 그 지역 중 일부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성령에 대해 말하고 손을 얹자 사도행전 19장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옛 제자들 중 일부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네 번 오시고, 성령이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으로, 이방인으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러한 다양한 집단으로 퍼져나가면서 선교사적 흐름이 나오는데, 이는 사도행전에서 언급됩니다.

I. 누가는 왜 썼을까요?-바울의 변호와 연설 [25:25-28:48]

그 다음에는 바울의 변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언급한 것인데, 제 생각에 우리의 P, 바울의 변호입니다. 저는 데오필로가 “매우 뛰어난” 데오필로 라고 생각합니다 .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모두 데오필로가 예수와 교회에 대해 배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썼지만 바울에 초점을 맞춰 “매우 뛰어난 데오필로 , 바울이 카이사르 앞에 갈 텐데, 그에게 손을 좀 쥐. 여기 배경이 있고, 박해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할 때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가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데오필로가 역사에 대해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연설로 기록했고, 그래서 여러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이 9개의 연설을 하고, 베드로가 9개의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런 연설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들의 실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목격자 유형의 녹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연설입니다. 베드로의 9개의 연설입니다. 바울의 9개의 연설입니다. 바울이 고소당할 것이라면 그의 말에 근거하여 고소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실제 연설자들을 주면 뉴스 미디어를 볼 때 매우 흥미롭습니다. 때때로 정치인을 보면 뉴스 미디어의 편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정 인물을 내세우고 뉴스 미디어는 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않고 해설자가 통역하여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은, 그들은 신체 사진과 그 사람의 영상을 찍지만 해설자의 오디오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자신의 말로 말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해설자가 원하는 대로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해설자는 실제 사람의 실제 말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뉴스 매체는 그 사람의 말을 길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4~5문장 정도인데 왜 4~5문장을 주었을까요? 문맥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하려고 하는 것의 문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뉴미디어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말로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역사를 쓸 때 베드로의 말씀, 9개의 설교를 줍니다. 바울의 말씀, 9개의 연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20개의 1인칭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위해 읽은 한 작가는 사도행전의 연설을 살펴보고 베드로의 연설과 베드로의 서신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바울과 바울이 쓴 내용 사이예요.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누가가 매우 정확하고 이 연설자들의 실제 말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연설은 고전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그들이 데오빌로에게 바울에 대해 질문할 때 그는 연설 내용을 알고 있고 거의 어떤 경우에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J. 누가는 언제 썼을까? 바울의 재판과 성전 파괴 [28:48-32:37]

누가는 언제 썼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날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이 많은 것들의 날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신약/구약 과정을 수강했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이 모든 날짜를 암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날짜는 몇 가지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이었고 다윗은 1000년, 586년이었고 그들은 바빌론에 갔고 여러분은 2000년, 1000년, 586년과 같은 주요 날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날짜는 서기 70년입니다. 서기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것은 티투스와의 로마인에 의한 두 번째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사도행전이 서기 63년 이전에 쓰여졌다고 제안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인데 그는 놀라운 신약학자이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의 *종착역*이 서기 63년 이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 침묵 때문입니다. 책에는 두 가지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서기 63년 이후에 쓰여졌다면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서의 바울 재판의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배를 만들고 배가 넘어 몰타 섬에서 난파되는 거대한 27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갑자기 매우 갑작스럽게 끝나고 그게 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사건은 엄지손가락을 올렸는지 아니면 내리셨습니까?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원후 65, 68, 70년 이후에 쓰여졌다면 우리는 확실히 바울의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우리가 바울의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바울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니?"라고 말하면서 책이 갑자기 끝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원후 63년은 언급되지 않은 바울의 사건의 결과나 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제2차 로마 감옥 이후 기원후 68년경에 죽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죽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책이 끝납니다. 그러니 기원후 68년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일은 아니고 저는 데이트에 관심이 없지만 기원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유대인 성전이 파괴되었다면, 사도행전에는 유대인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언급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티투스 와 로마인들이 들어가 성전을 파괴하고 두 번째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기원후 70년에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사건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두 번째 성전의 파괴를 기념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면 희생 제도인 신권이 산산이 조각납니다. 큰 사건인데도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이후에 쓰여졌다면 언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책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오순절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책의 많은 부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좋은 작품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책을 썼다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파괴로 끝낼 겁니다. 이것은 책과 문학적 목적에 완벽한 결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그것이 기원후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쓰여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K. 누가는 언제 썼는가? 로마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 [32:37-35:50]

여기 서기 64년 이후가 아니라 서기 63년이라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네로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저는 네로가 기본적으로 로마의 일부를 불태운 다음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씌웠다고 배웠습니다. 그는 로마의 일부를 불태운 이유는 재건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종의 공공 사업을 혁신하고 로마의 일부를 혁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불태운 다음 기독교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기독교인은 식인종, 무신론자, 근친상간자이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네로는 당시 서기 64년경에 기독교인을 기둥에 올려놓고 가연성 물질에 담긴 다음 불을 지르고 그들의 몸을 태워 로마를 밝혔습니다. 네로가 행한 것은 정말 잔인하고 사악한 박해였습니다. 서기 64년 이전에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때리지 않았고 화재가 난 후에야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평범한 카이사르에 불과했습니다. 서기 64년 이후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때 사악함이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쫓아가서 스탠드에 태워버리는 정말 흉악하고 사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네로가 그런 짓을 했고 그런 식으로 죽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면 사도행전에서 언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로의 박해 이전에 풀려나서 그곳에서 나왔고, 그런 다음 바울이 자유의 기간을 가졌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스페인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서기 67, 68 년경에 돌아왔고 그때 참수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고문과 같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고 베드로는 아마도 서기 64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로 세우려고 했고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나는 내 주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나빴을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은 서기 68년경, 베드로는 아마도 서기 64년경에 둘 다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죽음이 서술되지 않았고, 성전 파괴가 서술되지 않았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은 아마도 서기 64년 이전, 즉 서기 63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재판, 그는 풀려났고 사도행전은 그 전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의 재판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저 몇 가지 연대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서기 70년에 티투스가 성전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L. 규범적과 비규범적(서술적/

규범적) [35:50-39:44]

E: LN **결합**; 35:50-52:43 **규범적 대 비규범적; 그때와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더 철학적이고 사도행전에서 조금 물러나 역사적 문서에 대한 더 큰 질문을 하고 역사와 신학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져와 오늘날에 일대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오늘날이 사도행전과 같은가요? 역사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오늘날이 그 당시와 같은가요? 사도행전은 역사적 문서입니다. 역사적 자료와 규범적 자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규범적 자료는 무엇입니까? 규범적 자료는 say와 십계명과 같은 명령이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그것은 규범적 자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언급됩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사람을 살해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명령들은 규범적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시간에 걸쳐 있으며, 규범적 자료입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일 유형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유일무이한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나 갈대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나와 건너가다가 파라오가 따라오고 홍해가 그에게 무너지고 그의 쾌활한 로저스가 함께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홍해에 도달하면 우리에게는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규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규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모든 시간에 대한 규범적입니까? 모세에게도 그는 한 번 바위를 치자 좋았고 물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치자 하나님은 그때 바위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달라야 했고 모세는 두 번째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지시적 응답과 명령적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그리스어 문법에서 유래했습니다. 지시 동사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Johnny는 가게에 갔습니다. Johnny는 가게를 나간 후 농구 경기장에 갔고 Johnny는 영화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Johnny가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Johnny가 이것을 했고 Johnny가 저것을 했다"고 말하는 사실 진술입니다. 그것을 지시 동사라고 하며 지시 동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하는 것입니다. 명령 동사는 Johnny가 그의 어머니가 음식이 없어서 가게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Johnny는 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농구 경기장에 가야 합니다. Johnny, 농구 경기 후에 파티에 나가지 마세요. 그것은 명령 동사이고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 동사, 명령과 지시 동사, 사실 진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affect 진술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진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뿐입니다. 당신이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명령형은 명령을 내리지 만 명령 중 일부는 한 번만 합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 그래서 지시형과 명령형의 차이는 일어난 일과 일어나야 할 일의 기록입니다. "is"와 "ought"의 차이입니다. what is와 what ought의 차이입니다.

M. 사도행전의 규범적과 비규범적 [39:44-44:47]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일들이 한 번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들은 한 번 일어나고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매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것은 끝났고,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또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고든 칼리지에서 모든 수업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신약 성경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약 성경이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사도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의미였고, 그 다음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온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구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고,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 문서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구별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고, 우리가 그것을 여기로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팔았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글썄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삽비라를 치셨습니다 . 그것은 누군가에게 선교 여행에서 그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이유로 성령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하는 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할까요? Lane 식당에 가서 음식을 받고 기다리면서 “ 기다릴게요”라고 말하면 성령이 와서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 Tavilla 기숙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글썄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느님께서 Tavilla 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환상을 기다려야 할까요 ? 아니요. 그래서 풀은 몰타 섬에서 독사를 집어들었고 추락해서 뱀을 집어들었습니다. 뱀이 그를 물었고 독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그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뱀이 그를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갑자기 그들은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 독사가 그를 물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라고 말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방울뱀을 집어 들고 “풀이
 방울뱀을 집어들었으니, 나도 방울뱀이나 다른 독사를 집어들면 풀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게 요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해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홍해에 가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고 역사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요점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을 반드시 취해서 모든 시간에 대한 보편적인
 신학으로 매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특정했고,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으며 보편화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고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반드시 모든 시간에 대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경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역사적 자료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교리적
 자료와는 다릅니다. 바울이 육체의 열매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을 때, 육체의
 열매, 즉 악덕이 아니라 덕, 영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오래
 참음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보편적입니다. 그것들은 보편적이고 모든 시간에 매핑되고
 적용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보냈다는 사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라비아에 가서
 사막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것은 설명적 구절을 규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성경의 어느 부분이 규범적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은 그저 설명적일 뿐입니다. 그들이 한 일을 설명합니다. 설명적은 그들이 한 일을 설명할 뿐, 우리가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 위를 걸어야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독특함이었고, 그것은 서술적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물 위를 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술적과 규범적은 차이가 있으며, 그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규범적이지 않은 자료의 예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물 위를 걸으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회성 사건입니다.

N.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 지금** [44:47-52:43]

이제, 역사적 원리와 보편적 원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자료를 보편적 원리, 보편적 원리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한 네 가지, 어쩌면 다섯 가지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때는 지금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뱀을 집어들었고 뱀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우리도 뱀을 집어들었고 뱀이 우리를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뱀에게 독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시에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절름발이에게 가서 일어나 걸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일어나 걸으세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기적과 그와 비슷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는 지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접근 방식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지금과 하나로 매핑할 수는 없습니다. 일이 일어납니다. 홍해는 그때 갈라졌지만 다시 갈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가 지금과 같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인디애나 북부에 있을 때 저는 인디애나주 위노나 레이크에 있는 그레이스 칼리지에서 20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가르친 호바트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선지자에 대한 최고의 책 중 하나를 썼습니다. 그는 정말 똑똑했고, 성경에 정말 심취해 있었고, 선지자에 대한 책을 한 권 썼고 그는 훌륭했습니다. 그는 60년대와 70년대에 관여했는데, 그는 카리스마적 치유를 믿기 시작한 몇 가지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믿음이 충분하다면 예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말은, 신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의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아주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가 병들면 의사에게 가게 두세요. 하지만 호바트 프리먼과 그의 “글로리 반”은 당시 아기를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았고 실제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의사의 치료가 필요할 때 아기를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으면 아기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관성이 있었고,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다리에 굵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생겨 감염되었습니다. 이제, 감염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봐, 항생제를 좀 먹어. 그러면 감염이 없어질 거야.”라고 말합니다. 3일 정도면 감염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감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신에게 기도하고 “신이시여, 제 다리를 고쳐 주세요. 이 부위가 감염되고 있어요. 제발, 저를 고쳐 주세요.”라고 말할 때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글썄요, 24시간 약을 먹고 2~3일이면 감염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테지만 오늘날에는 강력한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그저 치유를 위해 기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감염이 괴저로 변했습니다. 이제 괴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괴저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다리에 괴저가 생기면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뇨병을 앓고 다리와 사지를 잃었습니다. 괴저가 생기면 잘라야 합니다. 그는 다리에 괴저가 생기면 여전히 의사에게 가서 다리를 절단하거나 무릎 아래나 다른 곳에서 절단할 수 있습니다. 괴저가 생기면 의사에게 가지 않으면 악화되고 아무도 괴저를 절단하지 않고 심장에 부딪히고 죽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신을 신뢰하고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삶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해요.” 기도만 하면 치유될 수 없어요. “의인의 기도”라고 하죠. 성경은 어때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병이 들면 의사를 만나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왔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교직원이 있는데, 방금 암에 걸렸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그는 삶의 끝에 대해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집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가 지금과 같지 않다”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에게 이 모든 기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때가 지금과 같다”는 것은 설명적과 규범적의 차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윤리적 규범의 차이를 보지 못합니다. 즉,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것이 해야 할 일이며, 그들은 ‘있다’ 와 ‘해야 한다’의 차이를 보지 못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적인 역사적 내용은 모두 사라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의 열매, 십계명과 같은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 내용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성경을 확증하기 위해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성경이 그때까지 쓰여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성경을 확증하거나 사도들을 확증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큰 부분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때와 지금이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와 지금”을 분리하여 이 모든 역사적 내용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단론자 라고 불립니다 .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멈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기적적 치유도 멈췄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치유와 방언과 모든 계시, 선지자, 그리고 그런 모든 종류의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그들은 중단론자 라고 불립니다 .

저는 그 문제가 역사적, 있는 그대로, 있어야 할 것 사이에 너무 많은 분기점을 만든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은 한 번에 하나씩 설교를 하셨지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글썄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역사적 맥락에서이지만,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역사와 규범적, 비규범적 요소가 역사 속에 뒤섞여 있고, 둘 다 있는데, 그저 역사와 규범적 요소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접근 방식에서 경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경륜주의자들은 달라스 신학교와 같은 학교를 보면 이런 종류의 단순한 분기점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적 문서와 규범적 문서의 관계의 복잡성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이 잠시 동안의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0. 서신 대 사도행전/복음서 [52:43-56:30]

F: OP를 합친 것; 52:43-59:51; 오순절(행2장)

어떤 사람들은 서신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규범적인 것을 제공하고 그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보다 규범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역사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일요 학교 수업에서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로마서가 하나의 렌즈이고 갈라디아서가 다른 렌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있고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렌즈를 통해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당신이 농담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책들보다 특정 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저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정경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전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시작하여 성경을 따라 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든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루고, 하나는 다른 하나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사물에 특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유기적인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감상하고 싶어하고 특권을 부여하고 "글쎄요, 이 두 가지 특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요, 사실 출애굽기 20장은 구약의 역사적 서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계명이며, 역사 속의 십계명은 규범적입니다. 규범과 역사는 그 지점에서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접근 방식보다 서신을 더 많이 취합니다. 그것은 “정경 속의 정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같은 특정 책을 다른 책보다 특권으로 여깁니다.

사실 사실은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산상수훈에 따라 살고 있고 성경의 모든 것이 산상수훈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산상수훈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돌아갑니다. 글썬요, 문제는 삶과 성경이 산상수훈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산상수훈이 지금까지 주어진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억해야 하며 산상수훈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삶은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책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전체를 배워서 조각들을 맥락에 맞게 놓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문서로서의 행적은 우리에게 행적서에서 원리를 추출하게 하고,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적이 우리에게 초기

교회의 역사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적서에서 원리, 보편적 원리를 추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초기 교회는 기도했고 집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들,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기 교회는 관대했고 열린 마음으로 도왔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관대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서 원리를 추출하고, 그런데, 구약 성경 수업에서 신명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율법과 토라를 취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까? 어떻게 율법을 취해서 오늘날에 적용합니까? 역사에서 가르쳐진 심오한 원리와 그 당시의 심오한 원리를 살펴보고, 심오한 구조 수준은 모든 시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론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사물을 분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역사적 특성에 불과한 특정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역사적 특성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보다 보편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P. 오순절과 이스라엘의 절기의 배경 [56:30-59:51]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기적과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

사도행전 2장을 읽고 오순절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했듯이 산상수훈, 산상수훈, 산상수훈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만 다루는 다른 교회들은 항상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 적그리스도가 환난 전에 오는지 후에 오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환난 기간 중간에 오는지 후에 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당신은 뒤에 남게 될까요?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런 수사학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들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환난뿐입니다. “아, 그거 끔찍할 거야. 그들은 네 뇌에 칩을 넣고 네 손에 짐승의 표가 찍힐 거야.”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만 공부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화를 냅니다. 당신은 “잠깐, 잠깐,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튜슨 박사는 이 테이프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세 번의 훌륭한 강의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종말 문학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지만 야고보서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공부해야 하지만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경 전체를 얻게 되면, 이 책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우선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장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모든 민족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오순절입니다 . 모든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와야 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절 무렵입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냈지만, 그들은 풀려났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마초 를 먹고* , 기본적으로 그곳에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유월절 식사, 유월절 어린양을 잡는 것,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부활절, 봄입니다. 그리고 약 50일 후에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오순절 입니다* . *오순절*은 5일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50일 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50일 후는 보통 6월이나 5월 말입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절기는 가을에 열리는 초막절입니다. 9월 초막절은 그들이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것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처럼 오두막과 천막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은 기본적으로 봄에 밀과 보리 수확 시기가 끝나는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밀과 보리 수확을 시작하고 오순절은 곡물 수확을 끝냅니다. 가을에는 올리브, 무화과, 포도의 절기가 있습니다. 과일은 가을에 열리지만 봄에는 곡물, 밀과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그것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질문.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으로 말함 [59:51-63:29]

G: QS를 합친 것; 59:51-72:35 끝 ; 사도행전 2장의 방언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위해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아마 6월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군중은 어리둥절해 모여들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왔는데 갑자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이 유창한 아람어를 말하는 것을 듣고 말했습니다. “와,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 언어를 배웠을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완벽한 라틴어를 구사하거나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완전히 놀라서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골 사람들이 제 언어를 어떻게 알까요 ?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고 지방에 살고 있고 거기서 매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 언어를 알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골 촌뜨기이거나 시골 사람입니다. 영어: 어떻게 우리 각자가 자기의 모국어로 그것들을 듣게 되었는가?파르티아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키레네 근처 리비아 일부에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키레네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리비아 출신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아 마르 카다피와 같은 키레네 출신이고, 그런 일이 최근에 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방문객들(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크레타인과 아랍인들--우리는 그들이 우리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혀”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Glossolalia* 입니다. “혀”라는 단어는 또한 “언어”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언어로. 그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서로 묻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다!’ 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언어로 말하면서 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짧은 연설을 듣게 됩니다. ” 유대인 여러분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이 사람들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 왜 그들은 취하지 않았을까요? 글썄요, 아직 아침 9시예요, 취하기에는 너무 이르죠. “이 사람들은 취한 게 아니예요, 아직 아침 9시예요. 아니, 이건 선지자 요엘이 한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라.’ ” 요엘은 요엘서 2장에서 그렇게 예언했어요. “너희 아들과 딸,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아들들만은 아니고],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심지어 내 종들인 남녀들도 그 날에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는 거기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현대의 방언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것입니까? 이런 현대적 것들 중 일부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R. 오늘날의 방언으로 말하기 [63:29-68:28]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1970년대에 어떤 그룹에서 물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운동 시절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오래전에 잊혀졌지만 Keith Green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괴짜라고 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70년대 예수 운동 시절의 예수 괴짜였습니다. 저는 당시 버팔로 대학교에 있었는데 스프링빌에서 온 그룹이 있었고 그들은 제가 스프링빌에서 성경 공부를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룹에 갔고, 글썄요, 미리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잘 모르고 제가 살던 곳에서 꽤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울릴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일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성경에 관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선샤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샤인은 캘리포니아에서 방금 왔어요. 선샤인이 들어왔는데, 기타를 등에 메고 있었고, 긴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큰 일이었어요.

선샤인이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 공부를 조금 하고 성경과 주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타를 연주했어요. 우리는 “멋지네요”라고 불렀고, 저는 “좋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기본적으로 불을 끄고 기도하자고 말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는 보통 눈을 감아서 불을 끕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불을 끄게 했고,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선샤인이 와서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하세요”라고 말했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통제하게 하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차례로 방언으로 말하고 뭔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평생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돌아다니며 모두가 뭔가를 했고 이제 그는 저에게 다가와서 저는 “밥소사, 여기서 뭘 할까? 제가 아는 걸 조금 할까, 스페인어로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에노스 디아스, 코모” 를 했습니다. 에스타 usted ” ?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 그는 나를 보고, 내 팔을 잡았고, 나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나를 보고 , 그리고 나서, 글썄요, 내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냥 물러났고, 물러서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나뿐이었고 , 그런데 기도도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그날 밤 내 기도는 그날 밤 성경 공부를 마치고 길을 따라 1마일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하나님, 이게 당신으로부터 온 건가요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거였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당신으로부터 온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맞나요, 저는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했듯 이 저는 진짜 근본주의 침례교 출신이고, 그걸 얹잡아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 침례교를 비난하고, 코를 찡그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저에게 많은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들이 가르쳐 준 많은 좋은 원칙과 핵심 미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우리는 코를 찡그리고 이 지적인 엘리트로서 우리 자신을 특권시합니다. 제 목소리에서 풍자가 들립니다. 저는 그것이 다소 성급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면, 근본 원칙에 대한 좋은 기초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낙담했고, 기본적으로 “갑소사,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카리스마 운동이 일어났고 카리스마 교회에는 많은 열정과 활력이 있었고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좋은 교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무와 카리스마의 활력은 열정을 되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많은 예배도 되살렸습니다. 반면에 제가 자랄 때 교회는 많은 관여를 했고, 일종의 교훈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데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도덕 원칙과 매우 좁은 기독교인의 방식, 즉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영화를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종류의 매우 제한된 경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카리스마 운동이 정말 폭넓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기독교 문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S. 앞으로의 일과 결론 [68:28-72:35]

하지만 여기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도 행전 2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 그것은 외국어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여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온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이 블루칼라 촌뜨기, 거의 모국어를

모르는 시골뜨기들이 전 세계의 언어를 말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와서 그들이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것이 요엘이 말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아들딸에게 임하여 예언할 것이다.” 성령의 임함은 마치 메시아의 임함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도 성령의 임함에 대해 말하고 오순절에 실제로 일어나며 외부적인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 중 하나는 실제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어가 자신들의 모국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더 큰 시나리오에 넣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끝낼 것이고 저는 우리가 이번 주에 수업에서 실제로 하는 일과 이 강의를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둘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2장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특정 언어 그룹과 그들이 온 지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외국어입니다. 분명히 외국어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이 사마리아인에게 임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임했을 때, 10장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언급한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는 요한 세례자의 제자들 중 몇몇에게 손을 얹었을 때, 제 생각에는 에베소에 있었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2장, 8장, 10장, 19장을 모아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방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시점에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성령의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다루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음 시간에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는 방언에 집중하고 그것이 오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의 기능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성령의 세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몸으로 묶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그가 그 모든 다양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것이
많고 다음에 다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tevie Schweighardt 가 필사함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 편집, Rough 편집